

동진-삼성, 유기 반도체 사업 공조

ETRI, 2004년 2월18일 워크숍 개최 ... 플라스틱 소자기술 개발 모색

초경량·초박막의 디스플레이, 입는 컴퓨터 등을 실현시킬 유기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최근 기술 동향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.

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은 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부 후원으로 2월18일 오전 9시부터 <유기 반도체 워크숍>을 개최한다.

워크숍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국내외 산·학·연 전문가 15명이 그동안의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동향을 발표하고 유기 반도체 산업화를 위한 공조를 모색하게 된다.

유기 반도체 기술은 유기물로 트랜지스터 소자를 제작하는 기술로, 기존 실리콘 반도체와 달리 저온 공정으로 싼 가격에 생산할 수 있으며, 종이처럼 가볍고 유연성이 뛰어나 초경량·초박막의 디스플레이, 입는 컴퓨터 등을 실현시킬 꿈의 플라스틱 소자 기술로 인식될 만큼 산업적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이다.

전자통신연구원은 2000년 11월 국내 최초의 플렉시블 유기 EL(Electro-Luminescence)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데 이어 현재 유기 반도체 소재기술과 반도체 제작공정 전체를 유기물로 대체할 수 있는 전유기 디스플레이(All Organic Display) 기술을 개발중이다.

워크숍에서는 삼성전자 홍문표 박사,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문대규 박사를 비롯해 동진세미캠 김병욱 부장, 삼성코닝 양기모 부장, DPI Solution 김철환 박사, 경상대학교 권순기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갖는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2/18>